

전남 의대유치범도민추진위 “의대 설립 공모 추진 공감”

김영록 지사, 간담회 갖고 배경 설명...집행위서 찬성 의결 범희승 공동위원장 “의대 설립 천재일우의 기회 적극 지원”

전남도는 9일 오전 서재필실에서 '전남도 국립의대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 집행위원과 의과대학 설립 관련 간담회를 진행, 공모 방식 추진 배경을 설명해 공감을 이끌어냈다.

지난 3월 대통령과 정부는 처음으로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추진을 발표했다. 전남도는 통합의대 방식이 아닌 어느 대학에 국립의대를 설립할지 공모 방식으로 추진기로 결정하고 지난 2일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 관련 대대민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날간담회에는김영록지사와범도민추진위 집행위원회 범희승·명창환 공동 집행위원장, 9명의 집행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지사는 직접 그동안의 국립의대 유치 활동, 추진 경과, 공모 방식의 추진 배경 등을 집행위원에게 소상히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범도민추진위원회 출범 이후 국립의과대학 설립·유치 활동에 애쓰는 위원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올해 1월 서울 국회 결의대회에서 보여준 위원들의 간절한 열망과 열망은 정부 국립의대 추진 발표에 큰 밑바탕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그동안 논의했던 통합의대 방식은 제반여건 상 물리적으로 어렵고 정부 방침에 따라 가능한 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해 그 방안으로 공모



전남도는 9일 오전 서재필실에서 김영록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의료·경제·학계 등으로 구성된 '전남 국립의대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 집행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전남도 제공)

를 통한 국립의대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며 “통합의대 추진은 장기적 과제로 추진돼야 할 사항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도민 뜻을 모아 공정한 방식으로 공모를 추진해 의과대학과부

속병원 설립을 결정하겠다”며 “위원들의 많은 고견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범희승 공동 집행위원장은 “지금이 전남도 국립의대를 설립할 천재일우의 기회”라며 “도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 위

원은 “범도민추진위원회도 (의대 공모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 이후 범도민추진위 집행위원회는 3차 회의를 열고 국립의대 선정 방식에 대한 구체적 방안 등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공모 방식의 의과대학 선정 추진

에 참석자 전원 찬성·의결했다.

범도민추진위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전남도 국립의대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이끄는 중심 기구로 의료계·경제계·학계 등 대표 14명으로 구성됐다. /김재정 기자

김지사, '의대 공모' 관련 릴레이 회동

15일 목포대 총장·목포시장·시의회의장
18일 순천대 총장·순천시시장·시의회의장

전남도가 공모 방식을 통해 전남권 단일 의과대학을 선정, 정부에 신청기로 한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가 오는 15일과 18일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목포·순천지역 대학과 단체장, 정치권과 릴레이 회동을 갖는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는 오는 15일 송하철 목포대 총장, 박홍률 목포시장, 문차복 목포시의회의장과 회동을 갖고 의대 공모 관련 전남 서부권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 김 지사는 오는 18일엔 이병은 순천대 총장, 노관규 순천시시장, 정병희 순천시의회 의장과 만나 공모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동부권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에서 가진 민생토론회에서 김 지사의 전남권 의대 유치 건의를 수용한 데 이어,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전남권 의대 신설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어 김 지사는 이날 2일 담화문을 통해 그동안 유지해온 목포대·순천대 통합의대 설립 방침을 사실상 폐기하고 공모를 거쳐 목포대와 순천대 중 하나의 대학(단일의대)을 선정, 정부에 신청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지사가 의대 공모 방식 선정 방침 발표 이후 양 대학 총장, 양 지자체 단체장, 기초의회 의장과 릴레이 회동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재정 기자

고속도로 법면 공익형 태양광 부지 재탄생

도·도공·전남개발공사 협약...국내 최초 공공주도 방식

전남지역 고속도로 법면이 공익형 태양광 부지로 재탄생한다.

전남도는 9일 오전 서재필실에서 한 국도로공사, 전남개발공사와 '공공형업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업무협약을 했다.

이는 국내 최초로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고속도로 법면 등 한국도로공사가 소유한 자산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구축하고 발전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공익 목적 사업이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지사, 함진규 한 국도로공사 사장, 장종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이 참석해 각종 고속도로 부지·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고속도로 법면은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 도로면까지 흙 등으로 쌓은 경사면이다. 실제 사용할 수 없는 유휴부지로 도로에서 보이지 않아 태양광 발전 사업 부지로 적합하다.

협약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사업 부지를 발굴·제공하고 발전수의 도민

지원 확대를 위해 부지 사용료를 인한다. 전남개발공사는 발전소를 구축하고 발전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한다. 전남도는 각종 인·허가를 지원하고 발전수의 도민 공유계획 수립 및 실행을 총괄한다.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경관 훼손 우려가 없고 안전성이 높은 부지를 중심으로 50~80억원 규모의 고속도로 법면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수소·전기차 충전소, 고속도로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 등 협력 가능한 에너지 신 사업을 적극 발굴해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양시원 기자

특히 전남도는 도로공사 유휴부지 발전 수익금을 토대로 도와 시·군 전입금, 각종 도민발전소 수익금 등을 한데 모아 가정 '에너지공영화 기금' 조성을 검토 중이다. 도민이 주체가 되고 도민 소득 향상을 위한 에너지사업 재원으로 확대 재생산하고 탄소중립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번에 조성된 기금은 ▲마을공동체 발전사업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인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한 융자사업 ▲재생에너지 펀드 투자 ▲취약계층 긴급 에너지 복지사업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영록 지사는 “도민에게 개발 이익을 환원하는 도민발전소를 본격 확대해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첨단산업 유치 노력도 지속해서 펼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여순사건 문학상 통합 운영 '첫발'...시·소설 전국 공모 예정

전남도는 9일 동부지역본부에서 '2024년 여수·순천 10·19평화문학상'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기 운영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제1회 10·19평화문학상 운영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여수·순천 10·19평화문학상은 그동안 시·군이 자체 추진하던 문학상을 전남도가 통합 운영함으로써 문학작품을

통한 유족 화합 및 여순사건 전국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제1기 운영위원회는 분야별로 추천 받은 위촉위원 6명과 전남도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명창환 행정부지사를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됐다. 2년 동안 평화문학상 운영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양시원 기자

5·18 진상규명조사위 종합보고서 초안 공개 촉구

광주·전남·제주의회 공동 성명

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제주도의회는 9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 초안 즉시 공개를 촉구했다.

3개 의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4

년여의 조사 활동을 마친 조사위의 조사 결과와 보고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조사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부실·왜곡 보고서'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개 의회는 “송진태 조사위원장은 잘못된 조사 활동과 부

실·왜곡 보고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종합보고서에서 충분히 수정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종합보고서 초안도 공개되지 않은 채 법적 기한인 6월28일이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사위의 개별보고서에 대해 3개 의회는 “곳곳에서 심각한 수준의 역사 왜곡을 담고 있거나 왜곡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부실한 내용을 최대한 수정·보완해야 하며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문제가 되는 개별보고서 자체를 불체택 또는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개 의회는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종합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고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기간을 보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성강 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립니다.

광고문의 및 출정접수
▶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 시내지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돈 받아 드립니다

1) 50%급매 임동 더현대쇼핑몰인근대로변 대지318㎡ 5층528㎡ 승강기1 주차6대 급매7억1,800

2) 화순 도곡 원화리 6차선도로변메인 계획관리 5,500㎡ 분할가능(시세50% 급처분)

3) 전일빌딩인접 중심상업지 코너 빌딩 대지804㎡ 7층5,300㎡ 승강기1 주차40 유동인구엄청 급처분68억(유자45억포함)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저(토너/드럼), 카트리지, 각종 잉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판매, 임대, A/S

T.375-5880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개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